

# 현대차그룹, 미래인재 확보 시동... AI·로보틱스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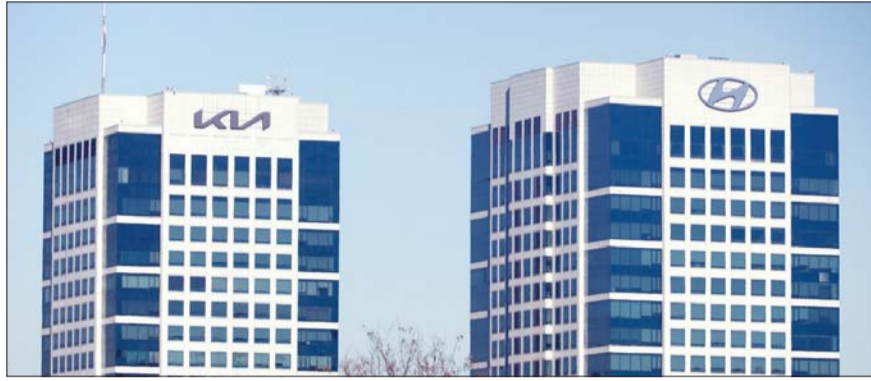
미래차·스마트공장 주도권 정조준  
현대차 제조 SW·AI 경력직 모집  
현대위아 열관리·로봇 인재 확보  
현대모비스 SW교육 채용연계 강화

현대자동차그룹 핵심 계열사들이 미래 신사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인재 채용에 나서고 있다.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치열하게 기술 경쟁을 펼치는 분야로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오는 17일까지 제조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AI) 분야 경력직 채용을 진행한다. 채용 부문은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SDF) ▲제조 AI ▲제조 로보틱스 ▲제조 물류지능화 등 총 4개 분야로, 서류 합격자는 6월 중 발표하고 1·2차 면접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현대차는 이번 경력 채용을 통해 로보틱스, 피지컬 AI 등 미래 신사업을 가속화하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고 제조 성능 향상 및 품질 경쟁력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현대차그룹 양재동 본사.

현대위아도 모빌리티 부품과 로보틱스 분야를 중심으로 특히 통합 열관리 분야에서 가장 많은 인재를 채용할 방침이다. 현대위아는 열관리 시스템 연구와 로봇 개발, 기획, 영업 등 6개 부문 40여 개 직무에서 대졸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서류 제출 기간은 오는 19일 오전까지다. 4년제 대학 졸업자(석·박사 포함)와 내년 8월 졸업 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다.

향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도 채용에 나선다. 모바일 로봇과 협동 로봇 개발을 비롯해 글로벌 영업 직군을 포함한다. CES 2026에서 선보인 주차로봇, 물류로봇, 협동로봇, 무인지게차를 개

발하고 글로벌 시장에 알리는 업무다. 이와 함께 통합형 드라이브 액셀(IDA), 고성능 댐퍼, 구동 시스템 제어 등 미래 모빌리티 부품 연구원도 대거 채용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완성차 시장 공략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부품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모빌리티 소프트웨어(SW) 분야 교육 프로그램인 '모비우스 부트캠프'를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준비생과 협력사 재직자에게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협력사 취업까지 연계하는 상생형 인재 양성 활동이다.

1기 수료생은 총 270명이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9월부터 취업준비생과 협력사 재직자를 대상으로 6개월간 모

빌리티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을 운영했다. 이번 교육은 현대모비스 임직원 SW 교육 체계를 기반으로 실무 중심 커리큘럼을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사전 진단을 통해 교육생 수준을 파악하고, 성장 단계에 맞춘 맞춤형 교육 구조를 마련했다.

프로그램 종료 전 일부 수료생은 협력사 취업을 확정하기도 했다.

현대모비스는 채용 연계를 강화해 상생 활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수강생들은 자동차 산업용 개방형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표준인 AUTOSAR와 차량용 소프트웨어 품질 표준인 ASPICE 등 글로벌 차량용 SW 관련 교육 과정을 이수했다.

현대모비스는 향후 교육 과정을 모빌리티 분야를 넘어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분야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제조 소프트웨어 및 AI 우수 인재 발굴에 총력을 다해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 대응하여 현대차 미래 산업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성문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 중진공

### '기업평가 전문인력' 통해 유망 중소기업 선별역량 강화

34개 지역본·지부 현장 전문가 위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업평가 전문인력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 선별 역량을 더욱 강화한다.

중진공은 11일 오후 경남 진주 본사 대회의실에서 '기업평가 전문인력(마스터)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발대식에서는 전국 34개 지역본·지부에서 현장 평가 경험이 풍부한 내부 직원 47명을 '기업평가 전문인력(마스터)'로 선정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된 인력은 석·박사급을 포함해 누적 평가건수 1000건 이상의 기록을 보유한 직원 등 전문성과 평가역량을 두루 갖춘 현장 전문가로 구성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마스터들은 전문성에 기반한 공정한 업무 수행과 청렴 의지를 함께 다짐했다.

선발한 마스터는 향후 1년 동안 현장에서 쌓은 평가 비법을 조직 내에 확산하고 내재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기업평가 경험 전수(멘토링)와 현장 교육(OJT)을 실시해 기관 전반의 평가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고,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애로를 발굴하고 연계 지원하는 가교 역할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 곡성·거창군 등 10곳 지역특화특구 컨설팅 지원

### 중기부, 지역 자생 성장 거점 육성 민·관 합동지원단 현장 상담 착수

전남 곡성군, 경남 거창군 등 10곳이 지역특화발전특구(특화특구) 컨설팅 지원을 받게 됐다.

지방정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두루 참여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이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의 자생적 성장 거점 육성을 위해 올해 새로 도입한 '2026년 지역특화발전특구 컨설팅 지원 사업'의 최종 지원대상 지방정부 10곳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특화특구'는 전국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구역을 규제특례 지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2004년 도입 이후 지역 특화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해 왔다.

중기부는 오랜 기간 운영하며 성장 이 둔화된 특화특구에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더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맞춤형 컨설팅 사업을 기획했다.

지난 3월 말부터 진행된 공모에는 총 17개 지방정부가 참여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산·학·연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 및 대면 평가를 거쳐 최종 명단을 선정했다.

선정된 10곳은 ▲전남 곡성군(섬진강

기차마을특구) ▲경남 거창군(승강기벨리산업특구) ▲경남 산청군(한방약초산업특구) ▲전북 순창군(장류산업특구) ▲경북 영천시(한방·마늘산업특구) ▲경북 성주군(잡외산업특구) ▲충남 금산군(인삼헬스케어특구) ▲경북 영양군(고추산업특구) ▲경북 영덕군(대게특구) ▲부산 남구(UN평화문화특구)이다. 특히,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시대 국정 철학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취지에 맞춰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등 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비수도권 특화특구들을 집중 선정했다.

2005년에 지정된 곡성 섬진강기차마을특구는 장미원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섬진강 체험장을 조성한다. 한방약

초산업특구(산청군)는 약초재배 연구단지 조성, 고품질 한방약초 생산·산업화 기반 등을 구축한다. 경북 성주 참외 산업특구는 스마트 참외 시설을 보급하고 고품질 참외 생산 기반 확충에 나선다. 인삼헬스케어특구(금산군)는 연구를 위한 인삼약초산업진흥원과 유통을 위한 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운영을 활성화한다.

중기부는 선정된 지방정부와 민간 전문가(로컬크리에이터, 상권 기획자 등), 지방중기청, 중진공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지원단'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현장 밀착형 상담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 애경케미칼, 스페셜티 소재 힘 신는다

### 자회사 중심 기능성 소재 확대 표면처리제·배터리 신소재 공략

애경케미칼이 이차전지 소재 등 미래 성장축 확대에 나선 가운데 자회사 애경스페셜티도 특수 기능성 소재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며 그룹 차원의 첨단소재 포트폴리오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

애경케미칼은 자회사 애경스페셜티가 특수 표면처리제와 배터리·반도체 패키징용 신소재, 고기능 코팅제 등을 중심으로 스페셜티 소재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애경케미칼은 기존 범용 석유화학 분야에서 축적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아라

미드 핵심 원료인 TPC와 이차전지용 하드카본 음극소재 등 첨단소재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애경스페셜티가 고부가 스페셜티 소재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서면서 양사의 사업 구조 전환도 맞물리고 있다.

애경스페셜티는 배합, 점도, 접착, 내구성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범용 사업을 넘어 특수 기능성 소재 분야로 외연을 넓히고 있다. 지난해 사명을 기존 애경 특수도로에서 애경스페셜티로 변경한 것도 스페셜티 소재 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성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애경스페셜티는 특수 표면처리제를 중심으로 고기능·고부가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원관희 기자

## 기보, 파산기업 IP 기술거래 활성화

### 부산회생법원과 업무협약 체결 스마트 테크브릿지로 수요기업 발굴

기술보증기금이 부산회생법원과 손잡고 파산기업 기술거래 활성화에 나선다. 하나는행과는 인수·합병(M&A)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게 보증을 지원한다.

11일 기보에 따르면 지난 8일 부산연제구에 위치한 부산법원중앙청사에서 부산회생법원과 파산기업 보유 지식재산권(IP) 활용 및 중소기업 기술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파산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기술거래를 위한 지원 사업을 총괄 기획·운영하고, 기술거래 플랫폼 '스마트 테크브릿지'를 활용해



김중호 기보 이사장(오른쪽)이 성익경 부산회생법원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수요기업 발굴과 기술이전 중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회생법원은 파산기업의 지식재산권 정보 공유와 매각 절차 개선, 신속한 처분 지원 등을 통해 기술이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 중소 옴부즈만

### 규제혁신 포상 후보자 내달 5일까지 접수 연장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026년 중소기업 규제혁신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 모집 기간을 당초 이달 8일에서 오는 6월 5일까지 연장해 신청을 받는다.

11일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따르면 2차 모집은 특정 산업이나 직군에 국한하지 않고 신산업, 지역 현장 애로 등 보다 다양하고 넓은 분야에서 묵묵히 규제 개선에 앞장선 온 숨은 유공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했다.

특히, AI 등 새로운 산업의 발전이 관행이나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풀어낸 숨은 공로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포상할 계획이다.

이번 포상은 기업 현장의 숨은 규제를 발굴·해소하는데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전년도에는 '협력사 납품대금 연동 계약기준 제정',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 발굴' 등의 우수 사례에 포상이 돌아갔다. 올해는 연장된 기간 동안 더욱 다채로운 분야의 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사례가 접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상 신청 요건 및 절차 등 세부내용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진흥부, 대한민국 상훈 누리집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